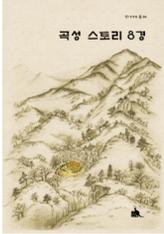


# “곡성서 전해오는 옛 이야기 ‘그림책’으로 만나요”

섬진강 아동문학반 작가 8명 참여  
역사·풍습 ‘곡성 스토리 8경’ 출간  
김성범·문중훈 작가 글·그림 지도

탐선마을황룡사삼층석탑, 통명산 골짜기 다락은, 섬진강 두꺼비, 당동 사면 불, 조동장군과 아왕공주, 옥터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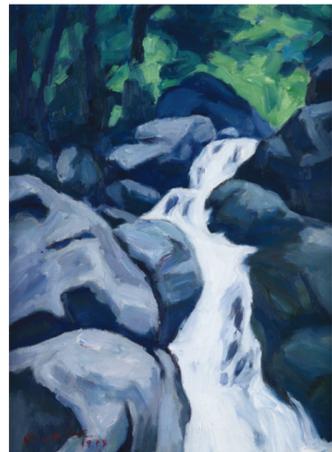
25번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섬진강 아동문학반이 최근 ‘곡성 스토리 8경’ (사진 왼쪽)을 펴냈다.

〈섬진강 아동문학반 제공〉

섬진강 유역에 자리한 곡성은 산지가 많고 여러 지류가 형성돼 있다. 각 지역이 산줄기를 따라 펼쳐져 있는데, 각 고을마다 고유의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최근 곡성에서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와 역사, 풍습, 문화 등을 담은 그림책이 발간됐다. ‘곡성 스토리 8경’은 섬진강 아동문학반 동시·동화 작가들 8명이 참가해 펴낸 작품집으로, 고향의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를 8편의 작품으로 갈무리한 것이다. 섬진강 아동문학반은 곡성에서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참여하는 문학동아리로, 2000년 초부터 25번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창작을 하고, 합평을 하는 등 실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문학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작가는 김성범 곡성도깨비마을 촌장이다. ‘곡성 스토리 8경’은 김성범 작가가 글을 지도하고 그림은 문중훈 작가가 지도를 맡았다. 책을 펴내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동시 동화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글을 짓는 데는 큰 어

려움은 없었지만 그림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문중훈 작가가 세심한 지도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1년여 가까운 노고 끝에 8가지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발간될 수 있었다. 섬진강 아동문학반 광혜익 회장은 “우리도 작업을 하면서 곡성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출간된 그림책이 곡성의 마을도서관이나 마을 회관, 각 학교에 비치돼 많은 이들이 곡성의 문화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혜익 작가는 탐선마을 황룡사 삼층석탑을 소재로 ‘동일 인재양성소’를 완성했다. 섬진강 길을 따라 들어서 있는 탐선마을에 삼국통일뿐 아니라 고려의 건국을 이끌고 인재를 양성했다고 전해오는 황룡사와 삼층석탑(보물 509호) 이야기를, 할아버지와 손자가 소풍을 가면서 정겹게 풀어낸다. 이순복 작가가 글을 쓰고 정은희 작가가 그린 ‘할머니의 논다랭이들’은 통명산 골짜기 다락은 이야기를 형상화했다. 200여 년 전, 곡성에서 가장 높은 통명

산 골짜기로 홍경래 난을 피해 숨어들어 간 사람들이 이른 금계마을 이야기를 97세 이순복 어르신 이 시를 손녀가 그림을 그렸다. ‘달이 된 두꺼비’는 섬진강 두꺼비와 소녀 이야기가 작품으로 탄생했다. 정은숙 작가는 은혜를 갚은 두꺼비와 소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완성했다. 돌실나이 이야기를 토대로 창작한 김상희 작가의 ‘삼 삼는 소리’는 곡성군을 대표하는 삼배를 일컫는 돌실나이를 구현했다. 삼배를 만드는 과정과 돌실나이에 숨은 이야기가 씨줄날줄처럼 엮여 있다. 권미양 작가의 ‘아기 부처를 입은 할머니 부처’는 당동 사면불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다. 사면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당동리석조여래좌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72호)의 유래를 만날 수 있다. 김창들의 ‘홍자야 홍자야’는 곡성 심정에 관한 이야기다. 효녀 심청, 원효장이 중국으로 건너가 황후가 되었고 고향이 그리워 관음상을 배어 실어 보냈는데, 옥과에 사는 성덕 처자가 돌부처를 업고 관음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김성범 작가의 ‘용기에 그린 십자가’는 옥터성지 이야기를 담았다. 1827년 천주교 탄압이 일어난 정해배해를 다룬 작품으로, 곡성성당은 당시 관아였던 옥터에 성당을 지은 연유로 옥터 성지가 됐다. 당시 교우촌 회장의 여동생이었던 막달레나와 아이를 등장시켜 천주교 박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도깨비마을 촌장인 김성범 작가는 “오랫동안 함께 동화와 그림책을 공부해온 아동문학반 작가들과 함께 곡성에 전해내려 오는 스토리를 엮어 그림책으로 발간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곡성의 역사와 풍습, 문화가 담긴 옛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책은 곡성을 활성화사업단 지원을 받아 발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지호 작 ‘계곡풍경’



장욱진 작 ‘나무 위의 새’

## 성큼 다가온 여름, 바람이 머문 자리

### 10월 1일까지 보성 우종미술관

강한 햇살과 폭우가 병존하는 계절 여름. 벌써부터 휴가를 계획하고 이미 떠나는 이들도 있다. 여름은 설레는 한편 쉽게 지치고 처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여름 너머 선선한 가을의 계절을 준비하기도 한다. 성하의 계절 여름이 머물고 간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종미술관이 여름이 지나간 자리 이후의 흔적과 여운에 주목한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 주제는 ‘여름, 바람이 머문 자리’. 전시실에는 오지호 화백을 비롯해 천경자, 장욱진, 이월중, 아산 이방원, 윤보 김기창, 앙드레 브라질리에 등 내로라하는 20인 작가의 동서양 회화작품이 걸렸다. 이들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는 ‘바람’이다. 바람이라는 자연이 투영된 작품들은 당대의 시대상과 맞물려 저마다 여운과 흔적을 발한다. 소장품들은 사실적인 묘사부터 색의 변질, 우연의 효과, 관념의 해석 등 다채로운 표현들로 구현됐으며 자연의 시간성, 회화의 물성과 결합돼 감각적 파동을 낳는다. 관람객들은 대가들의 회화가 지니는 독특

한 조형성, 표현방식의 다양성을 자연 요소와 함께 연계해 감상할 수 있다. 작가들의 심미적 안목과 감성, 기억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여름이라는 계절을 저마다의 시각으로 사유하고 느끼게 한다. 오지호의 ‘계곡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준다. 동근 바위 사이로 흘러나오는 세찬 물살에는 바람소리와 청량감이 깃들여 있어 눈과 귀, 그리고 답답한 마음까지도 씻어준다. 수목 느낌의 담백한 색채, 사람이 없는 빈 계곡이 주는 여름의 흔적은 차분함과 더불어 내적인 응시를 하게 한다. 장욱진의 ‘나무 위의 새’는 평화로운 여름날의 시골 풍경을 초점화했다. 동그란 형상으로 구조화한 나무 위에 사이좋게 앉은 새들 위로 하오의 태양이 빛나고 반달은 아스라이 걸려 있다. 밝기보다는 아이의 뒤통수처럼 부드러운 시골 여인의 모습은 넉넉하고 평화롭기 그지 없다.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련한 그림이다. 김미정 학예연구원은 “여름은 자연과 빛, 색채의 절정을 의미하고 ‘바람’은 움직임과 여백을 떠올리게 한다”며 “다가온 여름과 떠나갈 여름의 시간 사이에서 작품이 주는 감흥과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섬진강 아동문학반을 이끌고 있는 동화작가인 김성범 도깨비마을 촌장.



##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

###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전통을 잇는 무대가 올해도 계속된다. 광주시립창극단이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판소리 감상회’는 창극단 창작부 단원들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엄선해 선보이는 시리즈 공연이다. 이번 무대는 올해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진정성과 기량을 겸비한 단원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공연의 문은 이서희의 ‘심청가’가 연다. 단가 ‘추억’을 시작으로, 광씨 부인의 죽음을 알리는 상여소리부터 심봉사가 딸을 어른이 되듯 동냥을 하는 대목까지 강산제 특유의 정제된 소리를 들려준다. 김대은은 ‘수궁가’ 중 자라

가 토끼를 속여 공으로 데려오는 장면,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을 통해 유쾌한 해학을 풀어낸다. 이어 이정주는 가야금 병창으로 ‘흥보가’의 ‘중타령’에서 ‘제비노정기’까지를 선보인다. 도승이 흥보에게 집터를 잡아주는 대목부터, 박씨를 입에 문 제비가 흥보의 문전까지 날아오는 장면까지 흥보가 특유의 정감 있는 서사가 병창의 선율 속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정선심이 ‘심청가’ 중 ‘공양미 삼백석’과 ‘몽은사 시주’ 대목을 들려준다. 심봉사의 자탄과 심청의 효심이 절절히 엮힌 이 장면은 계면조의 가락을 타고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도경환 고수가 북채를 잡아 장단을 이끌며, 해설은 박승희 예술감독이 맡는다. 한편 올해 ‘판소리 감상회’는 오는 25일을 비롯해 8월 27일, 9월 24일까지 총 3회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정혜원 기자 hey1@

## ‘이재명 정부 지역문화정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방안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 시설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광주에 유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문화계의 목소리다. 이와 맞물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지원포럼)은 오는 23일(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6차 문화도시 이슈퍼럼을 연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이슈퍼럼은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광주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서는 류 지원포럼 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 시설 유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발표자들은 광주만의 역사문화자원과 AI 기술을 융합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재해석과 세계화, K-컬처와 연계한 글로벌 문화도시 광주 실현과 같은 전략들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의 공약과제와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 (전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백창기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고도화 및 국립문화시설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순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류 회장은 “광주는 AI 기술, 인문학, 문화예술이 융합된 미래형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형’ 설립을 매개로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            |               |
|-----|------------|---------------|
| 본점  | 서석동 남동성당 옆 | 062) 227-9940 |
|     |            | 062) 227-9970 |
| 서울점 | 종로 5가역 1층  | 02) 765-9940  |
| 순천점 | 중앙시장 앞     | 061) 752-9940 |